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韓정치 길 잃어… 알 깨지지 않으면 외부 충격"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음 4월 5일) 제327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3일 지역 혁신 플랫폼이 될 전북대학교 산학융합플라자 신축 현장에서 양오봉 총장, 정운천 국회의원, 최병선 총동창회장, 김동근 교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렸다.

전북지역 혁신 플랫폼 산학융합플라자 '첫 삽'

284억 투입… 내년 전북대 제2도서관 옆에 준공
나노·탄소·바이오 분야 이끌 50여개 혁신셀
기업과 산학협력 위한 지원 시설 등 들어서
인재 양성 기틀 마련·융합 연구 시너지 효과

지역 혁신 플랫폼이 될 전북대학교 산학융합플라자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에 따르면 23일 열린 기공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정운천 국회의원, 최병선 총동창회장, 김동근 교수회장,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과 함께 시삽 행사가 진행됐다.

산학융합플라자는 총 사업비 284억원(국비 184억원, 전북도 50억원, 전주시 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9층(연면적 1만1,169㎡)으로 규모로 2025년 전북대 제2도서관 옆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나노와 탄소, 바이오 분야를 이끌 50여개 혁신셀과 디자인스튜디오, 머신숍, 기업과 산학협력을 위한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대학 연구진과 학생, 기업, 지자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함께 혁신적인 지역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물적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산학협력의 중심이 돼 우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분산된 산학 연구시설의 통합으로 융합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산학융합플라자 신축사업은 전북대와 지역사회의 상생과 혁신을 위해 많은 분들의 힘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라며 "전북대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새로운 혁신 에너지를 창출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 꿈나무 739명 울산 개최 소년체전 출전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은 도내 739명의 선수들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본 경기에 앞서 진행 된 사전경기에서 전북 선수단은 현재까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상태다. /뉴시스

"살기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통합·상생 외쳐"

김관영 도지사, 봉하마을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추모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소재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김관영 도지사는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주제로 주관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 묘역 앞 생태문화공원 내 특설추도식장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3,000여 참석자들과 추모한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힘 없는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통합과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신 분이셨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전북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고 도민 모두가 함께 성공을 거두기 위해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협치 모델을 전북에서 많이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만경강, 생태·문화 어우러진 곳으로

도·전북환경청·완주군 등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용역 협의

올해 7월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그간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용역은 2021년 8월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의 후속조치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완주군 등 여러기관에서도 만경강 관련 용역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도는 향후 혼란이 없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만경강 관련 용역 사례로, 전북도에서는 만경강과 주변지역의 환경,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용역은 올해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홍수량 산정 등을 통한 이수, 치수, 환경관리를 위해 '만경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까지 추진하며, 완주군은 2022년 만경강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만경강 통합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수행한다.

가장 먼저 용역이 완료되는 전북도는 그간 만경강 유역 5개 시군과(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함께 자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히,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만경강과 주변지역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 키워드는 '자연환경과 생태자원', 발전을 위해 우선 고려할 사항은 '생태보전과 수질개선'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 '관광자간 연계방안과 생태자원 활용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는 이러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25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역화된 고수부지 재정비를 통한 친환경 홍수터 조성, 여울형 보 개선, 옛물길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물 환경 개선사업 12건, △전주·완주 상생협력공원 조성, 발원지 밤샘 생태 숲 조성, 강바람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캠핑파크 조성 등 주민친수사업 9건, △만경강 생태문화 캠프 등 강문화 활성화 사업 4건이다.

이 중 하천 내 사업 12건을 국가하천인 만경강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의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1일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는 용역 준공시기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시군 용역에 반영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인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봉동, 춘포지구 옛물길 복원 및 구하도 복원 등 일부사업은 조기착수가 가능하도록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지역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국가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